

각의 틀을 새롭게 보게 한다. 이러한 담론으로서의 역사는 기술하는 역사 뿐만 아니라 현실로서의 역사까지도 포함한다. 역사는 참여로서의 역사이고, 활동으로서의 역사이다. 이제 역사는 담론의 장(場)이 되었으며, 이러한 담론의 장에서는 문학과 비평은 정치세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한 역사의 변증법적 변화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같은 생각은 Fredric Jameson, Raymond Williams, Terry Eagleton, 그리고 Hayden White 등의 비평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최근의 문학이론 중 우리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부문은 여성중심비평이라고 불리우는 Feminist Criticism이다. 이러한 비평분야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왔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심의 도가 미약했다는 사실은 여성을 보는 시각 자체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성은 서구적인 이념 체제 하에서 언제나 타자(Other)로 존재해 왔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변적인(marginal) 존재로서 있어 왔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서구의 사회가 남성 우선의 가부장적(patriarchal)인 사회라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란 남자(man)/남자아님(non-man)의 이분법적 구별로만 가능했다. 남자란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사람>까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남자가 아닌 여자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의 여자는 자연히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 나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이 이처럼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적이 된 이유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태어났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Simone de Beauvoir의 지적대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들여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여성중심비평에서 쓰이는 두 가지의 용어는 바로 이 점에 유의하고 있다. 우선 생물학적인 남녀의 성별(性別)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sex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법에서 쓰는 단수/복수, 시제 등의 개념과 더불어 중요성을 갖고 있는 성(性)이란 뜻의 gender이다. 서구의 언어 체계에는 이성(性)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어느 한 언어체계 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인위적이고 자의적인(arbitrary) 문제이다. 예를 들면, 불어에서는 어머니(mère)는 여성이고 아버지(père)는 남성이다.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성별(sex)이 문법의 성(gender)이 된다. 그러나 같은 바다를 나타내는 말로 mer는 여성이고 océan은 남성이다. 이처럼 남녀 성(gender)의 구별은 인위적이고 자의적일뿐 자연적인 성별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여성 중심 비평에서 성별(sex) 대신에 성(gender)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이다.

이와같은 인위적인 구분은 이에 상응하는 권력의 문제까지를 수반하여, 어떤 것은 안으로 받아들여 수용하고, 어떤 것은 밖으로 내몰아 배제하기도 하는 권력구조와 관계가 깊다.

성(gender)으로서의 여성은 이 경우 언제나 밖으로 내몰려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성은 권력의 표현이기도 한 담론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고 담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어 왔다. 이는 가부장제의 특징인 <남근이성적 담론 phallogocentric discourse>⁷⁾ 구조에서 여성은 남근을 상실한 존재(-phallus)이므로 남근이 의미하는 권력 중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여기서 남근이란 남성의 생식기로서의 생물학적인 penis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권력구조로서의 남근임을 유의할 것. 이는 gender가 인위적인 구분인 것처럼, 남근도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구분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성별로서의 sex라는 말 대신에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용어인 gender를 쓰듯이, 자연적인 생식기인 penis 대신에 인위적이고 상징적인 phallus라는 용어가 쓰인다).

이러한 사회적인 텍스트(social text)가 곧 문학 텍스트(literary text)로 패배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적인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사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의하여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점이 바로 여성중심비평이론의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최근의 이론들이 중요한 몫을 한다.

우선 Derrida의 탈구축(deconstruction) 이론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보자. 남근 중심적이고, 이성중심적인 가부장제는 이제는 더 이상 중심에 있을 수 없다. 남근(phallus)이 중심에 위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logos로서의 남근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기초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logos의 가치가 없어지고, 다원화되고 탈중심화된 구조로 변했다. 그러므로, 지시어(signifier)와 권력의 근원으로서의 logos인 phallus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까지의 남성(man)/남성 아닌 것(non-man)이라는 이분법적 구별 대신, 우리는 모든 개체들이 공존하는 다원화의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남성은 남성대로 존재하고, 여성은 또한 남성을 매개로 한 가치가 아닌 여성 자신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은 이제 더 이상 남성 아닌 것([non-man], 또는 [-man])이 아니고, 여성적인 것([woman] 또는 [+woman])의 가치를 되찾게 된 것이다. De Beauvoir가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들여 진다”고 했을 때 그가 의미한 여성은 (-man)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이제는 여성(+woman)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길들여져야 할 것이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의미는 여성이 생물학적인 여성으로만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인위성을 뛰어 넘어 남자의 타자가 아닌 여성 자신의 주체로서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더 이상 주변으로 밀려 나고 배제되는 대상이 아니다.

7) M.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8), 5th ed., p.211.

Dirrida의 탈구축 이론이 여성으로서의 긍지를 되찾는데 기여했다면, Foucault의 이론은 이러한 긍지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틀을 제공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oucault의 이론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담론이다. 이제 여성은 남근이성중심의 담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신의 담론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러한 여성의 담론은 작품을 쓰는 단계에서의 담론뿐만 아니라 비평으로서의 담론도 포함한다. 담론은 지식을 생성하는 방법이며, 그렇기때문에 권력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권력은 권위의 중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형성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성중심적인 담론은 새로운 관계의 설정을 통하여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관계의 설정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남성과의 관계의 설정이다. 남성은 이제 남근의 중심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과의 우위 다툼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그물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이 이제 더 이상 배제되고 주변적인 것이 아니듯이, 남근 중심이 타파된 시대의 남성도 더 이상 타파의 대상은 아니다. 여성이 남성을 배제하거나 주변적으로 만든다면 이는 악순환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은 이제 남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담론을 구축해감으로써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의 그물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곧 여성의 담론이 가지는 힘이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여성중심적인 담론으로서의 문학의 몫이다.

여성으로서의 성(gender)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이상, 여성의 해방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일에서 소외돼 있었다. 여성의 일이 여성 자신과 소외된 이유는 여성이 하나의 기능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출산인데, 이는 곧 가부장적 사회 체제의 존속을 위해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은 단지 자궁으로만 존재했다. 여성의 노동도 주변적인 것으로만 여겨졌기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제 여성은 자신의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노동의 가치를 찾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노동을 포기함이 아니고, 노동이 가지는 가치를 여성 자신 것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여성은 출산, 가사 노동 등이 소외된 노동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의 영역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글을 쓰거나 비평을 하는 작업이 자신의 영역이 된 것이다. 이제 자유로워진 여성은 이 모든 영역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일원으로서가 아니고, 자기의 정당한 몫을 하는 여성이 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는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흥미있는 일이다. 역사의 변혁과 역사에의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마르크스 비평이론은 Foucault의 등장으로 인하여 정통문학이론과 가까워졌다. 정통문학이론은 이제 보수적인 기질을 많이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권력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반대하는 좌파이론가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Fredric Jameson 같은 좌파이론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는 편협한 좌파이론가이기를 거부하

여, 유럽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뿐만 아니라, Derrida나 Lacan 그리고 Paul Ricoeur 등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Althusser, Bakhtin, 그리고 Pierre Macherey같은 최근의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가 1982년에 발간한 *The Political Unconscious*는 이러한 그의 넓혀진 시각을 보여 주는 저서로, 그는 이 책으로 인하여 명실 공히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가가 되었다.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그가 *New Left Review*지의 1984년 8월호에 발표한 “Postmodernism or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이란 논문에 나타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Ernest Mandel이 지은 *Late Capitalism*이라는 책에 나타난 시대 구분을 원용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형태라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가인 Jameson의 이러한 지적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하하거나 또는 공격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그의 이러한 균형잡힌 시각은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에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쉽사리 부정하기도 어렵거나와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을 그저 경축하기도 어렵다. 이 두 가지의 태도는 모두 너무나 안이하고 온당치 못하다.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이념적인 견지에서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되는 구조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The point is that we are *within the culture of postmodernism* to the point where its facile repudiation is as impossible as any equally facile celebration of it is complacent and corrupt. Ideological judgement on postmodernism today necessarily implies, one would think, a judgement on ourselves as well as on the artifacts in question.⁸⁾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미문학의 이해

그러면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어떻게 영미문학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보아온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자세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성은 우선 <믿으려는 마음을 접어둔 (suspension of belief)> 시대라고 봐야 할 것이다. Coleridge는 이전에 이미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접어두는 것 (suspension of disbelief)>이 곧 문학을 보는 자세라고 말한 바 있지만, 포스트모던 시대는 그 반대로 믿으려는 마음을 접어둬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 Coleridge가 말한대로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접어두기 위해서는 순진성이 요구되는데,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미 순진성을 잃은 시대로 회의와 의문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는 여러가지 형태로 문학이론에도

8) Conor, p.50에서 재인용.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브레히트가 주장하는 소격효과(疏隔效果, alienation effect, Verfremdungseffekt)는 연극을 보는 관객이 연극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또한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에서 쓰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도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는 일상 지각세계를 낯설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론의 밑바닥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우리가 문학에서 말해온 작품이나 작중인물과의 동일시를 거부하며, 믿으려는 마음을 접어 두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은 또한 다양한 가치와 시각의 인정에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의 기준이 없어진 시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열린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문학이 여성중심적인(Feminist) 접근, 독자 반응적인 접근, 포스트모던적인 리얼리즘적 접근, 그리고 동양적인 접근등 여러 가지 접근법에 의하여 다양하게 접근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들은 모두 제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각각의 시각들은 나름대로의 일관성만 견지된다면 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들은 또한 자기들만의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서로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여러가지 접근법의 혼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성중심적인 접근은 탈구축 이론과 맞물려 있고, 또한 푸코의 이론과도 서로 통하며, 마르크스이론 그리고 라캉(Lacan)의 심리학적 접근과 동양사상과도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학의 이해의 폭은 아주 넓어진 셈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미문학의 이해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① 우선 포스트모던 시대에 쓰여진 작품을 이해하는 접근법을 보기로 하자. 포스트모던 시대에 쓰여진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접근법을 원용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은 어느 한 가지 접근법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시대도 아닐뿐더러, 또한 어떤 접근법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융통성있게 다양한 접근법을 작품 이해에 쓸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쓰여진 작품 중의 하나로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를 들 수 있다. 이 희곡은 Martin Esslin이 그의 《부조리 연극 *The Theatre of the Absurd*》이라는 책에서 부조리극으로 간주하고 있다. Esslin이 이 책을 쓰던 때에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이전이므로, 그는 《고도...》를 부조리극의 부류에 편입시켰다. 그의 이러한 선행 연구는 이 극을 포스트모던적인 작품으로 읽는 데에 있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이 극에 나타나는 중심(즉, 신) 부재의 주제는 이 작품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 주는 작품임을 입증해 준다. 더구나, 이 극 전체를 관류(慣流)하는 무진전(inaction)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묵시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진전이

없는 행동은 이야기를 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이야기는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시학 Poetics》에서 지적한 것처럼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는 구성원리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일된 구성원리는 여러 다른시대가 각기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 가지 방향으로 엮어 가는 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도...》에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신념체계가 없음을 나타내 준다. 이는 또한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신념 체계가 없는 시대일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 고갈된 텅 빈 시대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고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장면이 나온다. 에스트라곤이 그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곤에게 바지를 치켜 올리라고 채근하자 그때서야 에스트라곤은 그의 바지가 흘러내린 것을 의식한다. 에스트라곤이 블라디미르의 채근을 받고 자기의 바지가 흘러 내렸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의 그의 상태는 <얼빠진> 상황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얼이 빠졌다는 말의 통상적인 의미는 혼이 나갔다는 뜻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를 말한다. 이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특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과 대비해 볼 것). 그러나, 얼이 빠졌다는 의미를 언제나 나쁜 의미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에스트라곤은 무심(無心)의 경지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무심의 경지란 마음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풀려 있는 상태이다. 에스트라곤이 자기의 바지가 흘러 내린 것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은 그가 무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심의 상태는 또한 무아(無我) 또는 망아(忘我)의 상태로서, 자기가 있다는 생각까지를 잊은 상태이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마음은 자유로이, 거침없이, 그리고 단절없이 작용한다. 이러한 무아(무심, 망아)의 경지에서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와 대상으로서의 <객체>의 구별이 없다. 이 두 개의 구별되는 것은 서로 혼연 일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린 사실 자체까지도 모르는 에스트라곤은 우주와 하나가 된 셈이다.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대신 세계를 품게 된 셈이다. 그는 바지가 흘러 내린 가랑이 사이로 우주를 타고 서 있는 셈이다. 이것은 곧 동양적인 무심의 세계이다.

베케트의 《고도...》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간의 절망과 구원을 극적으로 보여준 연극이라면, Wallace Stevens의 시는 탈중심화(脫中心化)된 세계에서의 포스트모던적 시학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의 많은 시가 포스트모던적인 특징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특히 그의 <눈사람 The Snow Man>을 보기로 하자. <눈사람>에서 Stevens는 비어 있는 세계와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비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두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빈 눈사람을 형상화해 보여줌으로써, 결국 우주는 <비어 있음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준

다. 이 시의 마지막 Stanza는 이렇게 끝난다.

눈 속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어 있으면서
 거기에 있지 않는 비어 있는 것과 있는(존재하는) 비어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For the listener, who listens in the snow,
 And, nothing himself, beholds
 Nothing that is not there and the nothing that is.

그러나, 비어 있는 (nothing을 ‘비어 있다’고 번역했음) 사람은 그저 비어 있기만 하여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무엇을 열심히 듣고 있다(listens). “Listens”란 어떤 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듣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hears”와는 대조를 이룬다. 그는 그러므로 비어 있는 우주의 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이며, 또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도자(求道者)이기도 하다. 그는 빈 우주에 내던져진 빈 자신(nothing)을 보고, 또한 눈사람이 비어 있는 것과 동시에 차 있는 비어 있음(the nothing that is)임을 보고 beholds) 안다. 그는 그러므로 비어있는 자신이 비어 있는 우주와 같은 존재이며, 또한 눈속에 서 있는 눈사람과도 같은 존재임을 보고 안다. 여기에서 그가 “보는” 것은 비어 <있음>이고, “듣는” 것은 비어 <있음>이 내는 소리이다. 그는 비어 <있음>을 보고 들음으로써 비어 <있음>의 의미를 깨닫고 beholds) 자신을 비어 <있음>으로 채운다. 이는 곧 비어 있음을 우주의 근본으로 삼는 노장(老莊) 사상과 선(禪) 불교와 맞닿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Stevens가 보여주는 시의 세계는 중심이 빠져나갔다는 의미의 탈중심(脫中心)이기보다는 중심이 비었다는 의미의 허중심(虛中心)의 시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전자(탈 중심)는 있어야 할 중심이 빠졌다는 의미로서의 탈중심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중심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가정 자체를 허물고, 중심이 그저 비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Stevens의 이러한 시학은 장(章)을 달리 해서 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② 다음은 우리가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모던성(性)을 보는 방법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작품이 언제 쓰여졌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쓰여진 모든 작품이 포스트모던적이거나, 포스트모던성(性)을 가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어느 작품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작품에는 포스트모던성(postmodernity)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쓰여지지 않은 작품이라도 포스트모던성을 갖출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많다. 이러한 작품들의 예는 특히 모더니즘 시대에 쓰여진 작품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심화 발전 시킨 것이냐, 아니면, 모더니즘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측면이 많으냐 하는 논의는 접어 두고라도,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간단한 예를 들면 모더니즘의 작품은 근원(origin)이 상실된 세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근원에 대한 향수가 있다던지, 또는 언어의 재현성과 의미성(significance)에 기초하여 작품이 이루어졌다는 점등이 바로 이런 점들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성은 바로 근원의 상실에 대한 향수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근원의 상실을 즐김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의미성의 상실 또한 문제 밖의 일이다. 이와같은 근본적인 포스트모던성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찾아 보는 작업이 바로 포스트모던 시대가 아닌 시대에 쓰여진 작품에서 포스트모던성을 찾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모색을 Eliot의 대표작으로 여겨지는 《황무지 *The Waste Land*》에서 해보기로 한다. 우선 《황무지》는 지금까지의 통념으로는 모더니즘 시대에,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에 의하여 쓰여진 대표적인 모더니즘의 시라고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통념은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가? 우선 필자는 이 시의 재현성(再現性)의 결여를 들어 이 시가 모더니즘의 시이기보다는 포스트모던한 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재현성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는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시에는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의 전개가 없다. 이 점이 바로 《황무지》의 포스트모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측면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통일성과 목적성이 증발한 시대이다. 그러므로 통일성과 목적성에 의하여 하나의 줄거리가 전개되는 <이야기 narrative>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야기의 전개가 전제된 문학작품에서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사회의 모든 담론(discourse)에서도 나타나는 이야기의 부재(不在)는 포스트모던성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야기의 부재는 이야기로서의 시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이 시가 통일성이 결여된 수많은 단편들(fragments)로 돼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단편들은 여러가지의 다른 텍스트에서의 인용이거나, 또는 시인 자신이 만든 단편들이다. 위에서 <시인 자신이 만든 단편들>이란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시의 작자가 누구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다. 물론 우리는 이 시가 통상적으로 Eliot의 작품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하다. 우리는 이 시의 초고가 Ezra Pound에 의하여 수정돼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는 Eliot의 시인가 아니면 Pound의 시인가? 또 이 시에 나오는 무수한 단편들이 다른 텍스트에서의 인용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의 두 저자(Eliot과 Pound)에 덧붙여 다른 텍스트의 저자도 이 시의 저자가 아니겠는가? 또한 이 시에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시는 결국에는 독자가 쓰는(writerly) 텍스트일 것이므로,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는 문제 자체도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는 또한 어느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의 포스트모던성을 보여 준다.

③ 작품에서 포스트모던성을 찾는 일은 그러나 현대에 쓰여진 작품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Ihab Hassan은 Rabelais와 Sterne의 작품에서 이미 한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목소리 heteroglossia>를 예고하는 기법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포스트모더니즘이 있기 전에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을 예고한 pre-postmodernists라고 부른다.⁹⁾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나 문화 또는 문학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쓰여진 이미 포스트모던적인 특징을 가진 작품을 포스트모던적으로 읽을 수 있다. Byron의 《돈주안 *Don Juan*》은 이런 부류의 작품에 속한다.

《돈주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낭만기라고 분류하는 시기에 낭만시인으로 여겨지는 Byron에 의하여 쓰여진 시이다. 그러나 Byron 자신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낭만시인의 특질을 그의 시에서 보이지 않을뿐더러, 《돈주안》은 더더구나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낭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이 시에서 보여지는 산만한 구성은 낭만시가 보여주는 유기적인 통합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경우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란 압축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Byron의 시는 대단히 산만하다. Eliot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시의 특질로 압축과 응집을 든다면, Byron의 시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¹⁰⁾ 이는 그의 시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시의 특질과는 아주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시의 차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에 대한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Coleridge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상력에 대한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확산적이고 단편적인 특성을 상상력의 특징으로 삼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우리의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현실은 어떤 일정한 틀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가 현실을 담으려면, 상상력 자체가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상력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Byron은 생각했다. 현실을 가장 잘 담아내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경우 현실은 어떤 법칙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진 구축적인 틀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없다고 Byron은 믿었다. 이러한 Byron의 생각은 그의 시에서 확산적이고 원심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돈 주안》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여담(digress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담이란 이야기의 진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서술방법이다. 이러한 여담이 《돈 주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돈 주안》에 나타나는 여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Byron은 우선 이 시를 어떤 계획에 의하여 쓴 것이 아니다.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곧 이 시가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분명히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Byron이 이 시에서 사용한 기법일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는 세상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하

9) Ihab Hassan, "Pluralism in Postmodern Perspective," *Exploring Postmodernism*, eds., Matei Calinescu and Douwe Fokkema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87), p. 21.

10) T.S. Eliot, *On Poetry and Poets* (N.Y.: Noonday, 1943), p. 224.

는 일에 이 목적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목적이 없는 세상은 곧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잃은 세상으로서, 구심력은 없고 원심력만이 작용하는 세상이 된다. 여담이란 바로 이러한 원심력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며,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야기의 큰 줄거리가 성립되지 않는, 중심이 빠진 세상인 셈이다. 이러한 세상을 담은 시는 상상력을 목적을 가진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것으로 보는 Coleridge의 상상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통합적인 목적성의 결핍을 긍정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Byron의 《돈 주안》을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조에 근거하여 다시 새롭게 읽을 수 있다.

Postmodernist Readings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Chong-Ho Lee

We live in an age when labels beginning with “post-” are prevalent: Post-Structuralism, Post-Industrial age, Post-Marxism, Post-Feminism, Post-modernism, and so on. The prefix “post-” in this case simply designates a time span “after” something. Postmodernism, in this respect, simply designates a trend which comes “after” Modernism, and does not say whether Postmodernism is a continuation or break of Modernism. How can we, then, define postmodernism?

Postmodernism, unlike many other -isms, defies definition, because it is not a definite ideology or manifesto initiated by anybody but a life style (or way of life) after modernism. The closest thing to a definition of postmodernism, however, would be to say that the modern age is over and done with. In this sense, postmodernism can be vaguely defined as something opposed to what modernism stands for. In this context, such privileged terms as authority (of the author), presence, origin, and logos in modernism have been levelled down in postmodernism. In place of these terms, we have a free play of marginality, otherness, and absence.

One dominant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t readings of literature is the impossibility of only one correct reading of literature. One good example of this phenomenon is found in the feminist reading of literature. By toppling the dominant value of phallogocentrism, the feminist reading draws on many approaches available to reading literature: deconstruction, Foucaultian orientation, Marxism, Oriental thought, and so on. Postmodernist readings of literature have opened up new and vast horizons for a variety of exhilarating and innovative understandings of literature.